

2분기 이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놓고 저울질

한전, 16일까지 정부에 인상요인 제출...21일 인상여부 발표 인상 필요성 제기 불구 국민 냉방비 부담 등 인상 어려울 듯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까지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1일부터 적용돼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진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kW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

가보다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13일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경제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지역 상의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산업 육성 최적지"

지역 경제계가 13일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돼야 한다"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

을 피력했다. 이들은 "반도체 특화단지는 우수한 인프라 보유에서부터 성장잠재력, 지역균형발전 달성 여부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광주·전남은 오랜기간 지속된 지역 불균형에 따라 인구 유출, 인력난 심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IST,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내 우

수한 대학들과 연계한 연구,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지역에 조성된다면 인접한 국가 AI데이터센터와 비롯한 AI 집적단지 등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등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제20대 대선공약의 실천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달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초광역협력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채만 기자

2023 광주 사직 단오축제

일시 2023. 6. 24.(토) 12시 ~

장소 사직단, 광주 관덕정 일대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 시 간 | 행사내용 | 장 소 |
|-------------------------|--|-----------------------------------|
| 12:00 ~ | · 식전공연 · 단오축제, 활쏘기 개회식 · 창포머리감기 퍼포먼스 | 관덕정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
| 14:00 ~ | · 목사행렬 → 회경루(14시) - 천변좌로 - 사직단(15시) | |
| 15:00 ~ | · 사직대제 | 사직단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
| 15:30 ~ | · 취타대 공연 | |
| 16:00 ~ | · 줄타기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명인) | 관덕정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
| 17:00 ~ | · 무대공연 | |
| 18:00 ~ | · 폐막 | |
| 체험행사 15:00~18:00 | · 전통체험 (단오선, 애호, 장명루등) | 사직단, 관덕정 일대 |

주최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관 2023 광주사직단오축제 위원회 /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 사직대제추진위원회

후원 전국단오축제연합 / 광주문화재단 / 광주대학교 / 남구자원봉사센터 / 광주향교 / 광주관덕정 / 남구시니어클럽 / 광주매일신문사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협동조합 코끼리 / 협동조합 꿈꾸는거북이 / SU인터넷이민트 / 사직동주민센터

한전KPS, 노·사·협력사 '안전한 일터 구현' 한목소리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안전다짐 서약·토론회 개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13일 나주 소재 본사에서 '2023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및 협력회사가 함께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결의했다. 이날 안전경영위원회에는 발전안전사업본부 본부장인 허상국 부사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남규 교수 등 전문가 위원, 한전KPS 및 협력회사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전다짐 공동 서약을 했다. 회의는 부의 안전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안전활동 이행 역량 강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위험성평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의결과 안전다짐 서약, 외부강사 안전보건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에 상정한 안전들에 대한 환류 활동 및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의 생생한 의견을 안전보건관리사무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석 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주요 안전보건 현안들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방안 등을 토론했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전사적 안전·보건관리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경영위원회는 한전KPS와 협력회사의 안전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 관련 자문 회의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韓銀 목표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27일 상그리아미치호텔... '전남경제 선순환...' 주제

한국은행 목표본부는 13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목포 상그리아미치호텔에서 '전남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발전과제'를 주제로 2023년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방안과 인구감소·저성장 대응에 필요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 1부는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이뤄지며, 2부는 지정토론 및 질

의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는 이한솔 한국은행 과장이 '전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정책 변화와 지역 순환경제 강화전략'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형기 목포대학교 교수, 이상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예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노원종 한국은행 팀장 등이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목포=정해선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